

이 보고서는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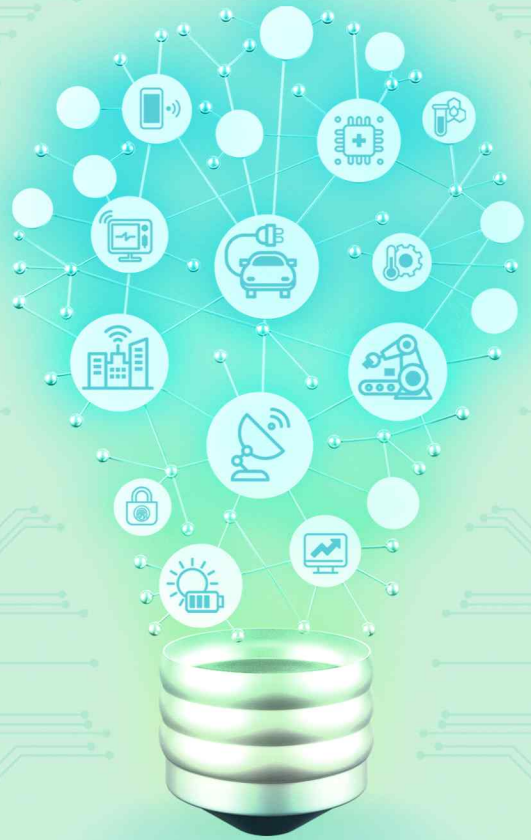
기술분석보고서

 YouTube 요약 영상 보러가기

서한(011370)

건설

요약
기업현황
재무분석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작성기관

NICE평가정보(주)

작성자

원인혜 전문연구원

- 본 보고서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후원을 받아 한국IR협의회가 기술 신용평가기관에 발주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본회와 작성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의 요약영상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며, 영상편집 일정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미 게재 상태일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에서 “한국IR협의회”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작성기관(TEL.02-2124-682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한(011370)

50년 건설 외길을 걷고 있는 종합건설사

기업정보(2022/01/11 기준)

대표자	조종수, 정우필
설립일자	1971년 05월 05일
상장일자	1994년 05월 24일
기업규모	중견기업
업종분류	아파트 건설업
주요제품	건축, 토목, 기타

시세정보(2022/01/11 기준)

현재가(원)	1,640
액면가(원)	500
시가총액(억 원)	1,655
발행주식수	100,894,865
52주 최고가(원)	2,880
52주 최저가(원)	1,400
외국인지분율	6.73%
주요주주	이용주, 박미진

■ 반세기의 역사를 보유한 종합건설사

서한(이하 동사)은 설립 후 50년간 건설사업에 주력하여 토목건축공사업 상위 1%대의 종합건설사로 성장하였다. 공공에서 발주하는 관급사업을 통해 안정적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수익성을 위해 자체 분양사업을 겸하고 있다. 아파트 브랜드 ‘서한이다음’, ‘서한포레스트’의 고품격 이미지 구축과 함께 꾸준한 기술개발로 건축, 토목 분야에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국내 건설수주는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214.8조 원으로 전망

국내 건설업의 수주 동향은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등 공공 수주 및 토목, 주택 민간 수주가 양호하여 그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그동안 양호했던 공공, 민간 부문의 비주택 수주 부진 그리고 자재와 금융비용 등의 상승 영향으로 그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내 건설수주는 2022년 0.2% 소폭 증가한 214.8조 원으로 명목 금액상 다시 한번 최대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 건설시장 변화에 맞춘 전략적 신규 사업 수주

동사는 변동이 많은 건설시장에 대응하여 자체분양사업과 안정적인 관급사업을 중심으로 수주 영업해오고 있다. 특히, 꾸준히 시공능력순위 1%대를 유지하며, 신기술 획득, 건설 품질관리 등으로 기술력 및 수주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다. 이를 기반 재개발/재건축, 토목을 포함한 다양한 건설사업 분야로 확대하고 브랜드를 강화하여 수주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요약 투자지표 (K-IFRS 개별 기준)

구분 년	매출액 (억 원)	증감 (%)	영업이익 (억 원)	이익률 (%)	순이익 (억 원)	이익률 (%)	ROE (%)	ROA (%)	부채비율 (%)	EPS (원)	BPS (원)	PER (배)	PBR (배)
2018	6,402	21.1	652	10.2	421	6.6	14.4	9.7	58.3	417	2,957	4.5	0.6
2019	5,481	(14.4)	240	4.4	98	1.8	3.3	2.1	55.4	98	2,994	12.2	0.4
2020	4,852	(11.5)	285	5.9	182	3.7	5.9	3.6	71.0	180	3,149	8.3	0.5

기업경쟁력

시공능력순위 상위 1%대 종합건설사

- 주택건설사업 등 건설에 주력하여 기술력 확보
→ 1971년 대구주택공사로 설립 후 상위 1%대 종합건설사로 자리매김
- 안정적 사업을 위한 전략적 수주 영업
→ 건설사업 변화에 맞춘
관급공사 및 자체 분양공사 수주 영업

사업 분야별 수주 전략 구축

- 건축/토목공사별 수주 전략 구축
- 건축공사
→ 신기술 개발과 축적된 기술력을 기반으로
편리성과 유용성을 겸비한 쾌적한 주거환경 추구
- 토목공사
→ 도로, 교량, 철도, 환경 상수도 시설 등
모든 토목 분야 수행 경험 및 기술력 보유

핵심기술 및 취급 품목

다양한 건축/토목공사 경험 보유



- 자체 브랜드 '서한이다음', '서한포레스트' 를 기반
자체 분양공사, 도급공사 등 다양한 건설사업 수주
- 고품격 아파트 이미지 구축으로 수주 활성화
- 토목건축공사업 시공능력순위 상위 1.56%

도급 건축공사



고양삼송 B-2BL

고양삼송A24BL(임대)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

ESG 현황

Environment

항목	현황
환경 정보 공개	□
환경 경영 조직 설치	□
환경 교육 수준	□
환경 성과 평가체계 구축	□
온실가스 배출	□
에너지, 용수 사용	□
신재생 에너지	□

田: 양호 ■: 미흡 □: 확인불가

Social

항목	현황
인권보호 정책 보유	田
여성/기간제 근로자 근무	田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	田
공정거래/반부패 프로그램	田
소비자 안전 관련 인증	□
정보보호 안전 관련 인증	□
사회공헌 프로그램	田

田: 양호 ■: 미흡 □: 확인불가

Governance

항목	현황
주주의결권 행사 지원제도	田
중장기 배당정책 보유	□
이사회 내 사외이사 보유	田
대표·이사회 독립성	田
감사위원회 운영	■
감사 업무 교육 실시	□
지배구조 정보 공개	田

田: 양호 ■: 미흡 □: 확인불가

- 당사는 지속가능경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별도의 환경부문에 참여하고 있는 지 확인 불가함.
- 협력사 지원프로그램, 공정거래/반부패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있는 등 사회부문에 참여하고 있음.
- 대표, 이사회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사회 내 사외이사 선임되어 있는 등 지배구조관련 정보 공개를 하고 있음.

* 본 ESG현황은 나이스평가정보㈜가 분석대상 기업으로 입수한 정보를 요약 정리한 것으로, 분석 시점 및 기업의 참여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I. 기업현황

안정적인 사업 운영 및 수익성을 위한 전략을 구축하고 있는 종합건설사

서한은 설립 이후 건설업에 주력하고 있다. 주요 사업은 주택건설사업이며, 이외 공공부문 건축사업과 토목사업 등 건설 전반 분야를 수행하고 있다.

■ 개요 및 사업 현황

서한(이하 동사)은 1971년 대구주택공사로 설립되었으며, 1994년 5월 코스닥 상장되었다. 대구에 본사를 둔 종합건설사로써 축적한 시공실적과 숙련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건축 및 토목 분야의 건설사업과 자체 브랜드 「서한이다음」과 「서한포레스트」 기반 아파트 분양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2021년 3분기 보고서에 따른 매출실적으로 도급 건축공사가 60.43%를 차지하여 아파트 등의 건축사업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1. 사업 부문별 매출실적 (단위: 백만 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3분기
건설(도급)	건축	366,483	293,500	249,429
	토목	52,376	54,894	33,874
자체 공사		120,000	117,188	122,261
기타		9,196	19,654	7,163
합계		548,055	485,236	412,727

*출처: 서한 3분기 보고서(2021),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동사는 건물의 사용 목적과 특징을 고려하고 주위 환경과의 조화에 있어 효율성과 기능성을 극대화하여 시공하고 있다. 최근 5년간 15개 단지 7,179세대를 성공적으로 분양하는 등 자체 설계와 시공 그리고 철저한 A/S를 통해 정확하고 견고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고객들에게 보다 쾌적한 삶과 가치 창출을 위한 주택건설을 수행해 왔다. 이와 함께 공사의 규모가 비교적 크고 장기간 소요되는 토목사업의 특성을 파악하여 축적된 경험과 기술력을 기반, 초기의 사업계획 및 설계 그리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으로 고수익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보유기술

대한건설협회에서는 전국 건설업의 공사 실적, 재무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항목 등을 종합 평가하여 업체별 시공능력을 산정하여 공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동사는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16층 이상의 초고층 아파트공사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토목건축공사업의 시공능력(2021년)은 전체 3,072업체 중 순위 48위로 종합건설사 상위 1.56%를 기록, 최근 5년간 꾸준히 1%대의 시공능력을 유지하고 있다.

동사는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토목환경사업부, 건축사업부, 기술혁신본부 등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해당 조직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건설기술자 405명이 근무하고 있다. 건설기술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에서 정하는 자로서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 2에 의한 건설기술자경력신고를 하여 개인별 학력, 자격, 경력에 따라 기술등급을 초급, 중급, 고급, 특급으로 인정받는다. 동사는 특급 82, 고급 61, 중급 20, 초급 242인이 자격을 보유하여 이를 기반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림 1. 시공능력평가액 변동 추이



표 2. 시공능력순위 (단위: 억 원)

구분	평가액	순위	전국 업체 수
2021년	8,257.49	48	3,072
2020년	8,247.52	47	3,044
2019년	8,445.09	46	3,045
2018년	8,742.74	46	3,096
2017년	7,077.33	46	3,119

*출처: 서한 3분기 보고서(2021),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또한, 2019년 7월부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인증을 받은 기술개발팀을 꾸려 공법 및 제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지정 건설 신기술 제870호 「급결 마이크로 시멘트계 차수재와 유연성이 확보된 글리시딜아크릴레이트계 보수재를 복합화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누수 보수공법(PAG복합차수공법)」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기술은 (주)제이에스기술, 리콘시스템(주)과 공동 개발하여 2019년 9월 고시된 기술로 지하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발생하는 누수를 보수하기 위한 공법이다. 건축구조물의 지하주차장, 기계실 등의 지하 공간에서 발생하는 누수 부위에 활용 가능하며, 기존의 보수기술과 비교하여 습윤면 부착성, 고수압 저항성, 수중 유실 저항성 등에서 뛰어난 보수성능을 확보할 수 있다.

동사는 특허 및 건설 신기술을 현장에 적용하는 등 지속 가능한 사업을 위해 꾸준히 기술력 확보에 힘쓰고 있다. 이와 함께 대구 본사와 서울지사를 꾸려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정부와 정부 투자기관이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다수 참여하는 등 수주를 위한 경쟁력을 갖추고 발전해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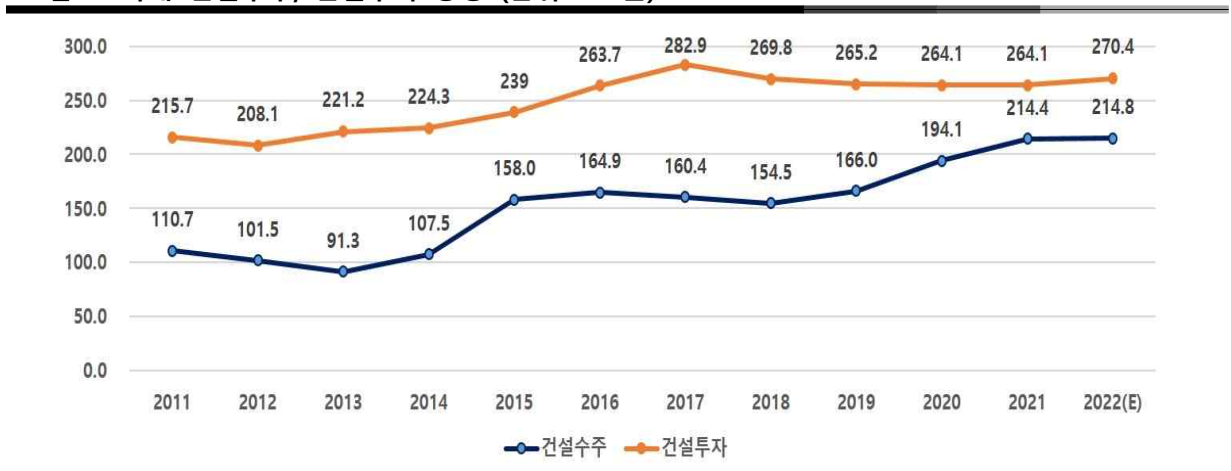
■ 시장 현황 및 경쟁사 현황

건설산업은 주로 발주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구조물, 건축물을 완성하는 수주 산업의 성격을 띠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2021)에 따르면, 2021년 국내 건설수주는 214.4조 원을 기록했으며, 이후 2022년은 0.2% 증가한 214.8조 원을 기록하여 다시 한번 최대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다만, 자재와 금융비용 등의 상승 영향으로 그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발주 부문별 공공 수주는 SOC 예산이 증가하고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와 한국판 뉴딜 사업 등의 영향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민간 수주는 토목과 주택 수주는 증가하지만, 비주택 건축 수주가 부진한 영향으로 전년 대비 감소할 전망이다. 특히, 주택 수주는 2021년 전년 대비 감소하며 주춤하였으나, 2022년은 재개발, 재건축 수주가 활발한 영향으로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 경기의 대표적 동행지표인 건설투자는 건축투자의 상승세가 지속하고 2021년에 부진했던 토목 투자가 완만히 회복되어 전년 대비 2.4% 증가해 2022년 270.4조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대형 사업의 공사 종료 및 유가 전망이 불확실한 영향으로 부진했던 토목 투자가 유가 상승으로 민간 플랜트 공사와 관급공사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주거용 건축(주택) 투자가 2021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회복되면서 이러한 상승세가 2022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2020년 COVID-19 영향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비주거용 건축투자 또한 2021년 반도체 공장 건설 및 도심 오피스텔 건설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세가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 국내 건설수주, 건설투자 동향 (단위: 조 원)



*출처: 대한건설협회(2021), 한국건설산업연구원(2021),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대한건설협회의 시공능력평가액 공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는 3,072개이며, 삼성물산, 현대건설, 지에스건설, 포스코건설 등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코스닥 상장기업 중 주택건축사업을 주력하고 있는 업체는 서희건설(상위 0.75%), 동원개발(상위 0.85%), 케이씨씨건설(상위 1.04%), 대원(상위 2.51%), 신원종합개발(상위 6.84%)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동사는 상위 1.56%의 시공능력을 기반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Ⅱ. 재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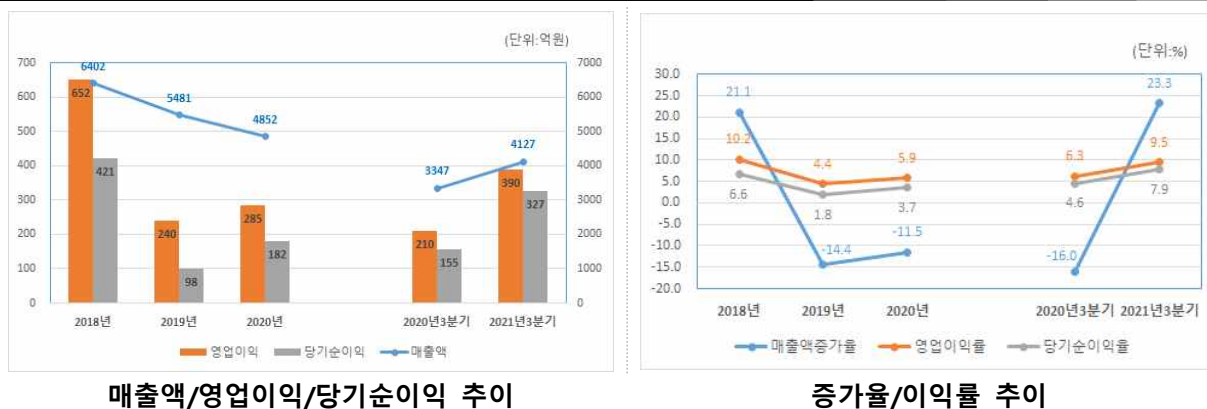
2021년 3분기 매출 회복, 수익성 양호

최근 2년간 매출 감소세가 지속되었으나, 분양공사 원가 부담이 완화되며 2020년 수익성은 전년대비 개선되었다. 2021년 3분기에는 2020년 다소 부진했던 건축공사와 자체(분양)사업에서의 실적 개선으로 매출 회복세를 보였고, 수익성도 양호한 수준을 나타냈다.

■ 2020년 건축공사 및 자체(분양)사업 매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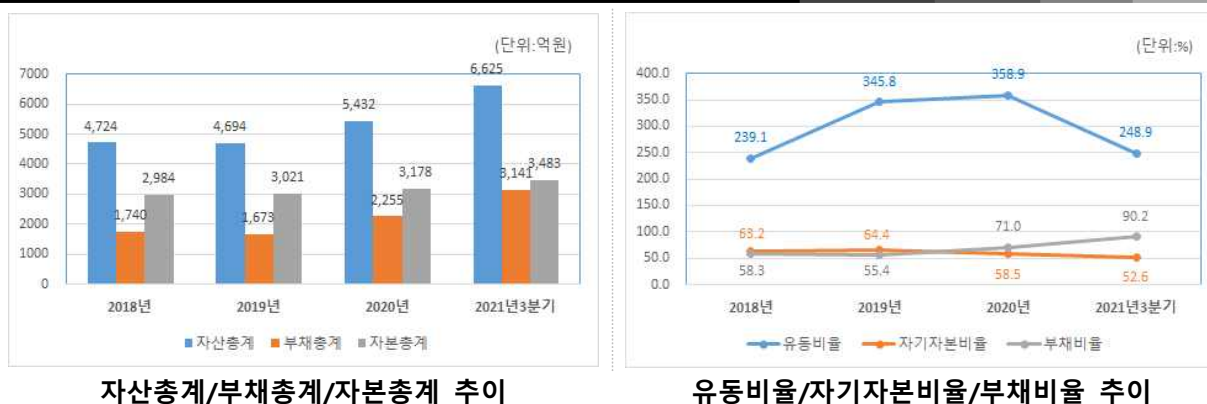
2020년 결산기준 개별 매출액은 전년대비 11.5% 감소한 4,852억 원으로 최근 2년간 외형 축소세가 이어졌다. 그 중 건축공사 부문 매출은 2,935억 원으로 총 매출의 60.5%를 차지하고 있는 주력 사업 분야이나 전년대비 19.9%가 감소하였고, 자체(분양)사업 매출 역시 1,172억 원(매출비중 24.2%)으로 전년대비 2.3% 감소한 모습을 보였다. 그 외에 토목공사 부문에서 549억 원(매출비중 11.3%), 기타 동고령 분양사업 외 등에서 197억 원(매출비중 4.1%)의 매출을 시현하였다.

그림 3. 동사 연간 및 3분기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분석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0), 분기보고서(2021)

그림 4. 동사 연간 및 3분기 요약 재무상태표 분석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0), 분기보고서(2021)

■ 자체(분양)사업에서의 원가 부담 완화로 수익성 개선

매출 역성장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세금과공과, 지급수수료 증가로 판관비율은 전년대비 상승(2019년 4.5% → 2020년 6.7%)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 분양공사 부문에서의 원가 부담 완화로 전체 매출원가율은 개선(2019년 91.2% → 2020년 87.5%)되었고, 영업이익 285억 원, 당기순이익 182억 원(매출액영업이익률 5.9%, 매출액순이익률 3.7%)으로 각각 증가하며 전반적인 수익성은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 2021년 3분기 매출 회복, 공사계약 잔액 풍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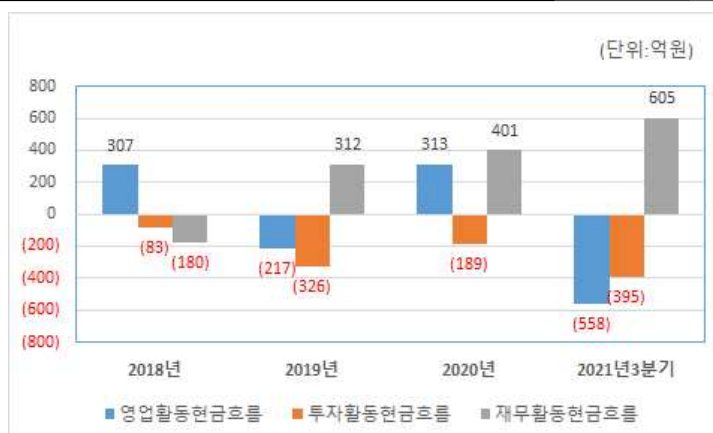
2021년 3분기 개별기준 누적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3.3% 증가한 4,127억 원을 기록하며 외형 회복세를 보였다. 2020년 주춤했던 건축공사 분야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1% 증가한 2,494억 원(매출비중 60.4%)을 기록하였고, 자체(분양)사업에서는 89.8%로 크게 증가한 1,223억 원(매출비중 29.6%)의 매출을 실현하며 외형 성장에 기여하였다. 수익성 면에서는 매출원가율 85.0%, 판관비율 5.6% 수준으로 낮아지면서 영업이익은 390억 원, 당기순이익은 327억 원(매출액영업이익률 9.5%, 매출액순이익률 7.9%)으로 각각 증가해 양호한 수익구조를 나타내었다.

2021년 3분기 말 초과청구공사(건축공사 235억 원, 토목공사 12억 원) 증가를 비롯해 신주 인수권부사채 및 파생상품부채 등의 증가로 부채 규모가 확대되면서 유동비율 248.9%, 자기자본비율 52.6%, 부채비율 90.2% 등으로 전기말 대비 제안정성 지표는 저하되었으나, 업계 대비 양호한 수준의 재무구조를 유지하였다. 한편, 2021년 3분기 말 공사계약 잔액은 건축공사 7,824억 원, 토목공사 1,354억 원, 자체(분양)사업 1,758억 원을 기록했으며, 총 1조 936억 원으로 풍부한 수주 잔고를 유지하고 있다.

■ 영업활동현금흐름 개선

2020년 순이익 규모 확대에 힘입어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전년대비 개선된 313억 원으로 흑자 전환하였다. 대여금 증가 등 투자활동에 따른 현금 유출은 189억 원으로 영업활동현금흐름 규모 내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추가 차입금 조달 등 재무활동으로 인해 401억 원의 현금 유입이 발생하며 양호한 수준의 자금흐름을 보였다.

그림 5. 동사 현금흐름의 변화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0), 분기보고서(2021)

Ⅲ.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경영기반 토대로 건설사업 주력 지속할 전망

동사는 프리미엄 브랜드를 기반 전국 7만 5천여 세대의 주택공급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50년간 축적된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역량을 기반으로 건설사업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 주요 사업 이슈

동사는 자체 브랜드인 「서한이다음」과 「서한포레스트」를 기반으로 고품격 아파트를 건설하여 새로운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등 꾸준히 건설사업에 전념하여 건설 외길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서한이다음은 2002년 런칭된 이후 꾸준히 고객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 서한의 오리지널 아파트 브랜드이다. 「Next」의 의미로 오늘을 넘어 다가올 내일의 더 큰 감동을 짓겠다는 서한의 미래지향적 주거 철학을 반영하고 있으며, 대봉 서한이다음, 영종국제도시 서한이다음 등의 주택건설사업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서한포레스트는 가장 친근한 공간이 더 높은 하이엔드 라이프라는 역설을 담은 서한의 새로운 주상복합 브랜드다. 휴식을 위한 공간이라는 「For Rest」를 중심으로 안락하고 포근함을 상징하는 숲을 중의적으로 내포한 가장 편안한 집에 대한 서한의 건설 철학이 담겼으며, 두류역 서한포레스트, 반월당역 서한포레스트 등의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두류역 서한포레스트는 오피스텔 우선 분양에서 112:1의 경쟁률로 분양 완료되었다.

표 3. 동사의 자체(분양)사업

구분	대봉 서한이다음	두류역 서한포레스트
		
위치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590-395번지 일원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동 138-2번지 일원
규모	지하 2층~지상 28층, 6개 동 /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아파트 480세대, 오피스텔 96실
공급	67 m ² , 84 m ² A/B, 99 m ²	아파트 59 m ² , 84 m ² A/B 오피스텔 29 m ² , 84 m ²

*출처: 서한 홈페이지(2021),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서한은 수익성 창출을 위한 자체(분양)사업과 함께 도급 건축, 토목공사 수주를 통해 안정적인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산범천2 주거환경개선사업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시흥 장현 A-12BL 아파트 건설공사 8공구, 대구도남 A-1BL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공사 수주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표 4. 동사의 도급 건축사업

구분	부산범천2 주거환경개선사업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시흥장현 A-12BL 아파트 건설공사 8공구
		
위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4동 1123-124	경기도 시흥시 장현동 340
공사기간	2020.07.30~2023.08.19	2020.02.29~2022.09.07

*출처: 서한 홈페이지(2021),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 ESG 활동 현황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로 기업의 지속 가능 경영을 달성하기 위한 3가지 핵심 요소를 의미한다. 환경 부문에서는 기후 변화, 탄소배출, 환경오염, 자원 및 폐기물 관리, 사회 부문에서는 고객만족, 인권보호, 근로자 안전, 지역사회 관계, 지배구조 부문에서는 기업윤리, 반부패, 공정경쟁,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등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기업엔 지속 가능 경영의 동기를 유발하고 투자자에게는 사회적 책임투자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국내 ESG 평가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서스틴베스트, QESG 가 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2021)은 ESG 평가등급을 공개하고 있으며, 각 등급은 S, A+, A, B+, B, C, D 7등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건설업은 일부 대기업, 코스닥 상장사의 등급이 제시되어 있다.

표 5.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주요 건설사 ESG 등급 현황

기업명	기업코드	ESG 등급	환경	사회	지배구조	평가연도
삼성물산	028260	A	A+	A	B+	2020
현대건설	000720	A	A+	A	A	2020
GS건설	006360	A	A	B+	A	2020
KCC건설	021320	C	C	B	C	2020
동원개발	013120	C	D	C	B	2020
동부건설	005960	C	C	B	B	2020

*출처: 한국기업지배구조원(2021),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표 6. 서스틴베스트의 주요 건설사 ESG 등급 현황

기업명	기업코드	전체 등급	규모별 등급	자산 규모
삼성물산	028260	BB	B	2조 이상
현대건설	000720	A	BB	2조 이상
GS건설	006360	A	BB	2조 이상
동부건설	005960	BB	A	5천억~2조
서희건설	035890	B	BB	5천억~2조

*출처: 서스틴베스트(2021),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산업통상자원부(2021)에 따르면, 현재 평가기관별 ESG 지표의 세부항목이 달라 같은 기업에 대해 등급 편차가 존재하여 평가대상인 기업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바, 2021년 12월 01일 국내 상황에 적합한 K-ESG 지표를 마련하여 표준화하기 위한 K-ESG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분야별 진단 항목을 보면 정보공시(P) 분야는 ESG 정보공시 방식, ESG 정보공시 주기, ESG 정보공시 범위 등 5개 문항으로, 환경(E) 분야는 재생 원부자재 비율, 온실가스 배출량,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폐기물 재활용 비율, 환경 법규제 위반 등 17개 문항으로 각각 구성됐다.

동사에 대한 ESG 평가등급 이력이 부재하여 공개 자료 및 질문지를 통해 ESG 항목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확인했다. 동사는 건설사업으로 인한 환경 영향조사 및 분석, 임직원 대상의 교육활동 등 환경경영을 위한 공식적인 활동은 확인되지 않으나, 환경보전 활동이 기업경영 전략의 중요 요소임을 인식하여, 정부 정책 및 제반 활동에 참여하고 환경경영체계 구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동사의 3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는 119명, 여성 근로자는 36명으로 총 415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부패 취약 부문 집중 개선, 인권 보호 문화 조성,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진행 등을 통한 윤리경영 추진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표 7. 여성/기간제 근로자 근무 현황

사업 부문	성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합계
건설 부문 외	남	286	93	379
	여	10	26	36
합계		296	119	415

*출처: 서한 3분기 보고서(2021),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또한, 협력회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공정한 하도급 거래와 상생 협력을 약속하는 협약 체결로 공동개발확대, 경영효율 개선지원강화를 실천하고 있으며, 어려운 이웃을 방문하여 주택 시설물 점검과 보수, 지역 재해복구 지원 등 사회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동사는 경영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회사 및 종속/관계회사에 대한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이사회는 3인의 사내이사와 1인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다. 감사위원회는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감사법무팀이 회사 경영 활동에 대한 감사업무를 지원하는 등 지배구조를 관리하고 있다.

■ 증권사 투자의견

작성기관	투자의견	목표주가	작성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근 6개월 이내 발간 보고서 없음 		

■ 시장정보(주가 및 거래량)



*출처: Kisvalue(2022.01)